



## 융합관광의 개념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onceptualization of Convergence Tourism

장 혜 원\*\*

Jang, Hye-Won

**요약** : 본 연구는 융합관광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개념에 대한 학술적 통일성은 부족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 의해 융합관광의 개념을 구체화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로서 심층면접의 내용을 맥락상으로 분석하는 귀납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절차는 먼저, 융합과 산업융합의 개념을 파악한 후 두 개념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도출된 공통 속성을 바탕으로 전문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이의 내용에 대해 내용분석을 하였다. 개념을 통해 추출하고 계열화하였으며, 이를 주제에 따라 범주화하였다. 이의 결과 융합관광 개념의 구성요소는 시장지향, 협력지향, 혁신지향, 가치지향 등으로 나타났다. 융합관광의 주체는 산업차원으로 시장지향성을 추구하며, 융합의 과정에서는 산업 간의 협력적·수평적 네트워크를 실행하기 위한 협력지향성과 콘텐츠의 창조적 결합을 위한 혁신지향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의 결과로는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창출하는 가치지향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결국 융합관광의 출발은 시장지향적 특성에 기반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타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해 나감으로써 경제적 가치는 물론 지역의 공적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광산업과는 차별된다. 융합관광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의 관광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어** : 융합관광, 융합, 통섭, 산업융합, 성분분석, 개념화, 심층면접, 내용분석, 시장지향, 협력지향, 혁신지향, 가치지향

**ABSTRACT** : Convergence is a phenomenon that has had a profound effect on several industries over the past decades. Despite this, prior research has been limited by a lack of coherent theoretical definitions of convergence in tourism study.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conceptualization for convergence tourism. The concept of convergence tourism was drawn by the inductive method. First of all, the researcher reviewed literature on convergence and industry convergence. Then, the three core attributes of subject, process and performance were derived from the concepts of convergence and industry convergence. This study also performed content analysis based upon in-depth interviews with individuals involved in medical tourism, MICE and 6th industrialization. Finally, to establish conceptualization the four categories of: market orientation, cooperation orientation, innovation orientation and value orientation were considered as conceptual attribu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nvergence tourism is sustainable tourism and furthermore, convergence tourism is a tourism paradigm.

**Key words** : Convergence tourism, Convergence, Consilience, Industry convergence, Componential analysis, Conceptualization, In-depth interview, Contents analysis, Market orientation, Cooperation orientation, Innovation orientation, Value orientation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2016213).

\*\*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학술연구교수. e-mail: lovepiano9928@hanmail.net

## I. 서 론

산업 환경에서 융합이 주요 변화를 동인하고 있지만 융합에 대한 통합적 관점의 학술적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이는 융합과 관련된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부족함을 의미한다(Lind, 2005; Pennings & Puranam, 2001; Stieglitz, 2003; Weaver, 2007 재인용). 대부분의 연구들이 융합의 기술적 측면에 집중되고 있으며, 명확한 개념적 토대에서 산업구조의 변화를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국외연구가 다자주의 개념으로 기술 및 학제연구에 집중되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영역과 의미로 융합을 정의하고 있다. 국내에 유입된 통섭의 학술적 개념, 일반인들의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이해 등이 한데 어우러져 혼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정모, 2014). 실천적 논리가 융합의 담론을 주도하면서 개념에 대한 뚜렷한 기준은 취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개념적 토대가 견고하지 않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Kaplan, 1964)나 올바른 발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융합 트렌드의 대두는 기존의 범위·정책·제도 등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을 등장시킴에 따라 관광산업의 발전전략에도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서운정, 2013). 융합관광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개념에 대한 학술적 통일성은 부족한 실정이다(김향원·남용현, 2013). 하지만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어는 개념이 구체화되어야만 현상의 속성이 전달될 수 있다(김구, 2011). 관광산업이 융합 현상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융합관광의 개념부터 정립돼야 하는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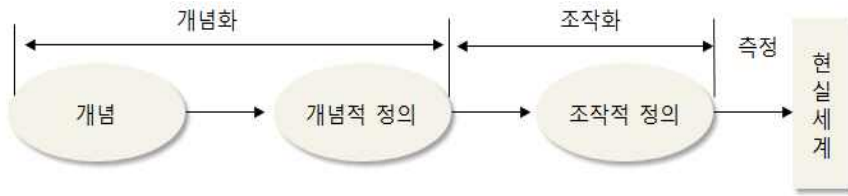
특정한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구체화하는 과정이 개념화이다(이익섭·신은경, 2005 재인용; Babbie & Rubin, 1997).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융합관광의 개념화를 탐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융합은 시장의 창출뿐만 아니라 산업의 구조 및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산업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류귀진, 2010; Greenstein & Khanna, 1997; Pennings & Puranam, 2001; Stieglitz, 2003; Weaver, 2007), 어떠한 기술융합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Rosenberg, 1963; Weaver,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융합을 제외한 산업융합의 관점에서 융합관광에 대한 개념화를 탐색하였다. 산업융합의 의미를 융합에서부터 파악하고, 융합과 산업융합의 공통된 속성을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후 그 범주별 특징을 전문가의 경험과 그 경험의 의미를 맥락상으로 분석하는 귀납적 방법을 통해 개념적 정의를 이끌어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문적·산업적으로 융합의 가치를 구체화하는데 이론적 토대를 제공함은 물론 질적 연구를 통한 관광이론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II. 융합관광의 개념화를 위한 이론고찰

### 1. 개념화 과정

추상적 개념을 경험적 개념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개념화(conceptualization)라고 부른다. 개념은 정의를 통해서 명백하고 정교하게 될 수 있는데, 개념적 정의(conceptual definition)로 제시하는 과정을 개념화(conceptualization)라고 하며, 개념을 현실세계에서 측정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조작화(operationalization)라고 한다(김구, 2011).



자료: 김구(2011).

〈그림 1〉 개념화와 조작화

개념화는 향후 조작화를 위한 전 단계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듯이 관련 개념을 토대로 그 개념의 정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개념화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융합관광과 관련된 개념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정리된 개념을 바탕으로 융합관광의 개념적 정의를 내리는 단계이다. 특히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융합 및 산업융합의 주요 속성을 토대로 융합관광을 추진했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이의 내용을 내용분석에 의해 주요 속성으로 범주화 한 후, 이를 토대로 융합관광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하였다.

## 2. 융합관광의 개념

### 1) 융합의 개념

연구영역에서 융합은 주로 정책, 산업, 과학기술 등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의 유사 용어로서 통섭(consilience)은 학문 이론적 용어로 논의되고 있다. 융합에 비해 통섭은 그 논의가 철학적이고, 학문 분야마다 주장하는 입장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더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신동희, 2011). 하지만 융합과 통섭은 서로 연결된 고리로서 깊게 관련되어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섭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고, 이어 융합, 이의 유사용어로서 복합, 통합, 합성 등의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통섭(統攝)은 각 영역 간 융합의 양상을 의미하는 컨설리언스(consilience)의 번역어로 Whewell(1840)의 『귀납적 과학의 철학(the philosophy of the inductive science)』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를 Wilson(1999)이 통합생물학에 인용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consilience”는 라틴어 “consiliere”에서 유래된 것으로, 여기서 ‘con’은 영어로 ‘with’, 즉 ‘함께’라는 뜻이고, ‘salire’는 ‘to leap’, 즉 ‘뛰어 오르다’ 또는 ‘뛰어 넘다’라는 뜻이다. 이를 국내에서 통섭(統攝)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였는데, ‘큰 줄기’, ‘실마리’라는 뜻의 통(統)과 ‘잡다’ 또는 ‘쥐다’라는 뜻의 섭(攝)을 합쳐 만든 말로서 “큰 줄기를 잡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Wilson, 1999; 최재천·장대익, 2005 옮김).

우리가 흔히 융합으로 지칭하는 “컨버전스(convergence)”라는 용어는 17세기 영국의 과학자인 윌리엄 더햄(William Derham)에 의해 처음 쓰여 졌는데, 20세기 중반까지 정치과학, 경제학 분야에도 사용되었다(Gordon, 2003). 융합은 수학, 물리학, 생물학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뜻은 여러 가지 이질적인 것들이 하나로 모이는 것, 즉 수렴을 의미한다. 특히 생물학에서는 서로 다른 계통을 지닌 동·식물이 생물학적으로 동일하게 진화해온 근사치의 모습을 지칭하며, 이를 “convergent”라고 한다(Morris, 2003). 반면 같은 동식물군이었지만 서로 다르게 진화된 모습은 “divergent”라 한다. 하지만 “convergent”는 외형적 변화만을 이

〈표 1〉 연구영역에 따른 융합(convergence) 개념의 적용 사례

연구자	개념	연구 영역
Negroponte (1978)	- 과거에는 다른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의 경계가 무너지거나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	산업
Morris(2003)	- 독립적으로 다른 곳에서 진화하는 생물의 구조들이 최종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현상	사회생물학
신동희(2011)	- 스마트 융합: 단순한 변화나 결합이 아니라 산업, 기술, 수용자, 시장들 간에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과정	인문, 과학기술
김성호(2012)	- 예술융합: 예술과 디지털 융합만이 아니라 융합과 분리가 언제나 유기적으로 발생하는 만남으로, 상호간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상태에서 융합(consilience)하는 다원주의 위상을 견지함	예술학
이인식·오세경·엄경희(2010)	- 융합기술: NT·BT·IT 등의 신기술 간 또는 이들과 기존 산업, 학문 간의 상승적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미래의 경제와 사회, 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	과학기술
이상문·울슨(2011)	- 컨버저노믹스(converge nomics): 융합은 어떠한 물건이나 아이디어를 새로운 목적을 위해 결합하여 시너지를 일으키는 작용으로, 융합경제는 융합혁명으로 촉발된 새로운 기업 환경을 일컬음	경제학
김덕현(2011)	- 융합은 통섭의 산물로서, 고객·시장 지향의 융합노력을 말하며, 융합의 결과물이 특정 가치에 수렴하도록 만들어야 함	경영학
이정모(2014)	- 융합과학기술: 미래 과학기술의 방향은 융합과학기술의 틀(NBIC converging technologies)이며, 이들의 핵심 축은 Nano, Bio, Info, Cogno(인지과학) 등	인지과학

끄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구성요소를 동일하게 변화시키도록 하기 때문에 생물학에서 융합이란 “두 개의 다른 혈통의 존재가 변이를 거쳐 동일한 생물학적 구조를 가지게 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Zhang & Kumar, 1997; 김향원·남용현, 2013 재인용).

이와 같이 수렴을 전제로 하는 융합은 아이러니하게도 해체(deconstruction)와 상반되는 개념에서 일정부분 차용되었다(김성호, 2012; Negroponte, 1978). 해체란 부정적 의미의 파괴가 아니라 자기 동일성을 지니지 않은 복수성(multiplicate)의 상태로, 어떤 중심을 만들지 않으며, 설령 중심이 있더라도 그 중심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무한한 차연(difference)<sup>1)</sup>만이 적용되는 일종의 비위치 상태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고정된 중심이 아닌 끊임없이 바뀌는 운동체로서, 결국 융합은 차연의 결과인 셈으로 해체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언제나 사물들 사이에 있

는 상태로서 융합은 ‘이다’가 아닌 ‘되다’의 존재 개념인 것이다. 다양한 지식들이 동등한 지위를 갖고 서로 만나고 접합되고 또 새로운 지식이 완성되는 열린 체계이며, 이것은 곧 지식의 다양성과 연결된다.

융합은 또한 통섭과 함께 복합, 통합, 합성 등과도 비교되곤 한다. 〈표 2〉를 중심으로 융합과 이들 용어에 대한 의미에 대해 성분분석(임지룡, 1990)을 통해 비교해 보면, 융합, 복합, 통합, 합성 등 모든 단어의 뜻이 ‘둘 이상의 것들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수렴의 의미에서 공통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물리적 과정에서 융합, 복합, 합성 등이 공통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통합은 기능적으로 합쳐진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속성, 즉 시차적 성분을 가지고 있다. 결과에서는 원형보존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융합은 복합, 통합, 합성 등과 시차적 성분을 가지고 있다.

1) 차연이란 시간화에 따른 자연과 공간화에 따른 차이를 뜻한다(Derrida, 1996).

〈표 2〉 융합의 유사용어에 대한 의미 비교

단어	뜻	수렴	물리적 과정	원형 보존
융합 (融合)	-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들 - 둘 이상의 사물을 서로 섞거나 조화시켜 하나로 합함	+	+	-
복합 (複合)	- 둘 이상이 거듭 합쳐지거나 그것을 합쳐 하나를 이룸	+	+	±
통합 (統合)	-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등을 하나로 모아 합침	+	-	±
합성 (合成)	- 둘 이상의 것이 합쳐져 하나를 이룸	+	+	±

주: +의 표기는 공통적 성분, -는 시차적 성분, 그리고 ±는 공통적·시차적 성분 모두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함(임지룡, 1990).

2) 산업융합의 개념

융합의 개념을 산업에 적용한 것이 산업융합이다. 융합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정의가 있듯이(신동희, 2011), 산업융합의 개념 또한 뚜렷한 이론적 함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산업에서 융합은 Rosenberg(1963)가 1800년대 후반 특화된 공작기계산업(specialized machine tool industry)의 진화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기술융합(technological convergence)’ 단계를 소개하면서 등장하였다. 그는 융합을 “본질과 최종재의 관점에서는 상관성이 없는 산업들이 기술적 기반에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기술융합은 상위 기술과의 융합이며 하위 산업과의 융합(예, 자전거와 자동차 산업)은 발생하지 않는 반면, 산업융합은 어떠한 기술융합 없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융합과 산업융합은 별개의 현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하였다.

산업에서 융합의 개념이 부상하게 된 계기는 1978년, MIT대 미디어랩의 네그로폰테(Negroponte)가 컴퓨터, 출판, 영화, 방송 등 산업의 해체 및 재결합을 설명하는 과정에 인용하면서 부터이다. 그 후 2000년대 초반까지 컴퓨터, 유·무선 통신, 방송, 정보가전 등이 결합되는 디지털 컨버전스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미국과 EU의 정의에 따라 IT는 물론, 바이오·나노 기술, 인지과학 등의 기술이 결합된 융합기

술을 의미하였다(김덕현, 2011).

국외에서의 산업융합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의 관점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융합을 맥락으로 이해한 연구이다. 이런 연구들은 특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융합이 발생하는 장소와 R&D(Bröring, Martin & Leker, 2006), 혁신(Harianto & Pennings, 1994) 또는 전략적 제휴(Duysters & Hagedoorn, 1998)를 다루고 있다. 둘째는 주로 융합의 기술적 측면을 다룬 연구이다. 융합으로 인한 기술발전에 집중되는데, 기술 세분화와 적용, 혁신,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 기술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Borés, Saurina & Torres, 2003). 셋째는 산업융합을 현상 그 자체로 탐색한 연구이다. 산업융합의 개념을 기술과 산업구조 안에서 다루며 현상 자체로 정의하고 분류·이론화를 시도한다(Greenstein & Khanna, 1997; Lei, 2000; Pennings & Puranam 2001; Stieglitz, 2003; Wirtz, 2001).

이와 같이 산업융합의 개념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주로 ICT 사례나 관찰 위주로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Weaver(2007)는 산업에서의 융합의 발생원인, 과정, 결과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실증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는 산업융합의 개념을 “산업융합이 발생되기 이전에 각각 정의된 2개 이상의 산업이 대체재로써 융합되는 과정으로, 이는 융

합 이전의 산업이 사전에 정의될 수 있어야만 산업 간의 융합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결과물의 경계는 불확실하다”로 정의하여 기술융합과 산업융합의 차별적 접근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eaver(2007)의 산업융합의 정의에 따라 기술과의 융합을 제외한 산업 간의 융합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융합이 산업분야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산업융합촉진전략에서는 “융합(convergence)이란 기존 산업의 기술, 제품·서비스를 재조합하여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는 활동으로, 융합의 범위는 패키지·하이브리드·퓨전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단순 개조는 제외한다(지식경제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11)”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영역들의 복합화 및 기능적 통합에 초점을 두는 상당히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안희자·심원섭(2013)은 산업융합을 핵심단어인 ‘산업’과 ‘융합’을 바탕으로 정의하였는데, “기술·서비스 전 분야에서의 혁신적 산업생산활동(Schumpeter, 1934)의 과정으로 기술·제품·서비스 전 분야에서 재조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산업융합은 가치사슬 활동 각각이 다른 가치사슬 활동으로 진화하는 과정으로, 서로 분리된 가치사슬들이 연결, 통합, 재구성되면서 그 범위가 계속 확대되는 현상이라 하여 과정으로서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했을 때, 산업융합의 개념

은 다른 산업들이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는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융합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혁신의 의미가 더해져 산업융합의 개념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융합의 혁신적 관점은 일찍이 Schumpeter(1934)의 자본주의에서의 경제발전은 “기업체와 개인의 기업가적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지속적인 혁신에서 나온다”는 주장을 통해서도 지지될 수 있다. 혁신과 불연속성에 대한 슈페터적 개념은 경쟁과 산업발전의 다이내믹하고 유기적인 관점을 가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산업융합을 직·간접적으로 슈페터의 개념에 대한 결과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Weaver, 2007).

### 3) 융합 및 산업융합 개념의 속성

이상에서 살펴본 융합 및 산업융합의 개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속성을 아래의 <표 3>에 제시하였다. 융합과 산업융합의 개념에서 공통적 요소를 비교해 봤을 때 주체와 성과에서 핵심 속성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과정에서는 융합이 주로 탈 중심성, 조화 등의 관계적 네트워크와 해체, 붕괴 등 기존 영역의 분리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산업융합은 재조합, 연결, 통합, 재구성 등 물리적 네트워크에 관련되고 있다. 이는 산업에서 융합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지만, 융합의 본원적인 속성인 다양한 주체들이 동등한 지위를 갖고 서로 만나고 접합되는 관계적 과정에서 수반되는 수평적·협력적 가치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표 3> 융합 및 산업융합의 핵심 속성

구분	핵심 속성		
	주체	과정	성과
융합	서로 다른 주체, 독립적 주체, 둘 이상의 주체 등	진화, 붕괴, 유기적 만남, 결합, 해체, 탈 중심성, 상호작용, 섞임, 조화 등	근사치, 가치창출, 새로운 목적, 통섭, 열린 체계, 새로운 결과 등
산업융합	두 개 이상의 산업, 기존 산업 등	결합, 재조합, 진화, 연결, 혁신, 통합, 재구성, 재결합 등	대체재, 제3의 결과물, 새로운 가치창출, 시장창출, 범위 확대 등

혁신을 포함함으로써 경제발전론(Schumpeter, 1934)에 근거한 산업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3. 융합관광의 선행연구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융합관광은 주로 농촌관광, 의료관광, MICE산업, 한류관광 등을 중심으로 구분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과의 융합형 관광(권철순·변우희·홍창은·김기태, 2014; 김희경·차영란·봉미선, 2010; 박현지·박봉규, 2014; 변우희·이정열·변성희, 2013), 유사형태로서 창조관광(박양우, 2013; 이무용, 2012) 등도 거론되고 있다. 연구의 내용에서는 산업 환경에서 융합 패러다임이 대두됨에 따른 관광산업의 대응으로서 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인과율적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논리적 근거에 의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김사현(2006)은 융합관광을 선언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관광산업이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경제적으로 관광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로서 한류관광, 의료관광 등을 들고 있다.

안희자·심원섭(2013)은 융합관광을 산업융합에 대한 개념에 근거하여 “전통적인 관광산업과 타 산업 분야의 콘텐츠나 자원의 창조적 결합과 복합화를 통해 기존의 관광산업을 혁신하거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존 융합관광의 유형으로서 의료관광, MICE관광, 농촌관광 등을 제시하였으며, 신융합관광으로써 한류관광, 레저스포츠관광, ICT 융합관광, 산업관광 등을 중심으로 육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융합관광에 대한 개념이 주로 융합의 주체-과정-결과를 포함하고 있다면, 국외에서는 제한적으로 관광객 관점에서 환경 또는 문화와의 융합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Apostolakis,

2003; Cohen, 1992; Reisinger & Crofts, 2009). 상대적으로 국내 관광산업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회 전반에 부상한 통섭과 융합 등 학문적·산업적 이슈와 맞물리면서 그 용어를 실천적 의미로 차용되어 온 것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에 비해 국외에서는 융합의 개념을 불명확한 산업영역으로서 산업 또는 기술적 사고(idea)에 기반하고 있어 이전의 산업적 범주를 재위치화하거나 상호작용에서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는 새롭게 등장한 산업으로 구분(Bröring *et al.*, 2006; Dowling, Lechner & Thielmann, 1998; Karvonen, 2011 재인용)하고 있다. 융합을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좁은 의미에서 IT 또는 디지털 등 주로 기술과의 융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III. 융합관광의 개념화를 위한 심층면접조사

### 1. 조사 설계

본 연구에서는 앞의 융합과 산업융합의 개념에서 도출된 핵심 속성, 즉 주체, 과정, 성과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개념화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심층면접은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피면접자의 주관화된 가치나 태도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김구, 2011) 개념의 사회적 실체와 현상이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고 경험되고 생성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윤택림, 2013).

심층면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자와의 라포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실시하기 이전에 전화 통화 및 현장방문을 통해 피면접인과의 라포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참여관찰을 수행해 연구결과의 타당

〈표 4〉 피면접자의 기본사항

사례	성별	연령	사업의 참여기간	면담 횟수	사업 분야
A	남	50대	3년	2	농촌관광
B	남	50대	3년	2	
C	남	50대	3년	2	
D	남	40대	5년	1	의료관광
E	여	30대	5년	1	
F	남	30대	4년	2	
G	남	30대	2년	2	MICE산업
H	남	40대	7년	2	

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피면접인은 농촌관광, 의료관광, MICE 산업 등 관광분야에서 융합관련 사업(안희자·심원섭, 2013)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피면접자의 일반적 사항을 다음의 〈표 4〉에 제시하였다.

심층면접의 내용은 내용분석에 의해 분석되었다. 내용분석은 문자로 된 메시지의 주요 구성요소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구성요소는 단어 또는 용어, 주제, 인물, 문단, 항목, 개념, 의미 등이다. 하지만 내용분석의 기록단위가 잘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데 묶어 주는 범주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의 기록단위는 개념을 통해 추출하여 계열화하였으며, 이를 주제에 따라 범주화하였다(김경동·이은숙, 1998; 김광웅, 2003; 김구, 2011). 내용분석에 대한 핵심어휘, 계열화, 범주화 도출 결과는 관광학을 전공하는 박사 과정생 2명에게 어디팅(auditing)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대해 연구자와 토의를 반복함으로써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고하였다(조성남·이현주·주영주·김나영, 2011).

## 2. 분석결과

### 1) 시장지향

#### 〈산업차원〉

산업융합은 산업 대 산업 간에 발생하는 것이

다(Weaver, 2007). 산업 대 기술, 기술대 기술의 관점에서의 융합이 아니라 산업들 차원에서 융합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관광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타 산업과 융합하게 된다. 산업은 경제적 가치창출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이며 본질적으로 시장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산업은 시장 환경에서 융합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된다. 그 정보에 기초하여 시장에 대응(유봉호, 2008)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따라서 융합관광은 시장 지향적 특성이 있다.

*의료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규제완화를 통해 공공재에서 민간재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이 분야 역시 하나의 산업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의료의 산업성을 강화하려고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의 의료관광모델이 실질적으로 판매하기가 좀 어려웠던 형태의 것들이었습니다. 의료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를 상업화하는데 제약이 많은 것이죠. 한 예로 병원을 개원할 때 투자를 유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풀려있는 곳입니다. 해서 의료산업에 관광이라는 산업을 연계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사례 F).*



2) 협력지향

〈수평적 네트워크〉

관광산업은 소비유형에 따라 교통, 숙박, 식·음료, 오락, 쇼핑 등 기존 산업과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다(류광훈, 2001). 전통적인 형태에서 관광산업의 네트워크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보완하여 상품을 구성하지만 융합관광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산업들이 그룹을 형성하고 서로 간에 연결(Gomes-Casseres, 1994)함으로써 전문화, 개방화를 통한 고도의 산업융합을 실현하게 된다(윤철운, 2000). 관광산업과 타 산업이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정책뿐만 아니라 제도, 생산, 마케팅 등을 연계해 새로운 관광서비스가 대체재(Weaver, 2007)로 창출하게 된다.

융합관광은 6차 산업화 같이 연계(net-working) 또는 협력이죠. 예를 들면, 말(馬)산업과의 융합을 들 수 있습니다. 1차 산업의 육종, 2차 산업의 향장 및 부산물제조, 3차 산업의 스포츠, 레저, 경마 등과 이를 확장한 공예나 art(예술) 등과 같은 문화산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Horse therapy, ADHD 정서치유 같은 것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지 예술인과의 연계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사례 B).

〈공조〉

관광산업과 타 산업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융합을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성과에 대한 막연한 소망이나 꿈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결과를 그려나가게 하여 조직을 결속시킬 수 있다(김성중, 2009; 김세우, 2007; 정보현, 2013). 융합의 결과에 대한 조직의 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개인의 목표를 동시에 내재화하고

이를 가시화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게 된다. 이를 위해 다른 업무, 조직에서 오는 갈등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외국인 대상으로 힐링 패키지 상품을 만든다고 한다면, 너무 완벽하게 의료의 느낌을 강조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다른 상품과 똑같이 가기도 어렵고... 두 영역의 공동요소, 특히 국가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서 상품을 구성합니다. 러시아는 따뜻한 걸 추구합니다. 물을 이용한 수치료를 아주 좋아합니다. 상대적으로 장기 휴양형이면서 해독과 비만관련 상품을 선호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의료와 웰니스의 공동요소를 융합시키는 거죠. 그러기 위해 병원, 여행사, 에이전시, 즉 의료코디네이터 등과 협력을 하게 됩니다(사례 F).

3) 혁신지향

〈창조적 결합〉

최근 관광시장의 주도권이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규격화된 관광상품보다는 개인의 체험을 중시하는 상품구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관광패턴이 문화적·창조적으로 전환(이무용, 2012)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결합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융합관광이다. 관광대상 뿐만 아니라 관광상품의 생산방법까지 창조적으로 결합하게 된다.

저희 공원에 있는 말(馬)은 다른 목장의 있는 말과 비교해 더 선한 눈빛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덜 받는 환경에 있다는 말이죠. 동물복지라고 할까요? 이것이 기존의 승마장 또는 말(馬)테마파크와는 차별화

되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것들을 혁신 한다는 것은 창조성 및 다른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죠(사례 B).

#### 〈내발적 혁신〉

관광산업은 혁신적으로 기술과 서비스, 콘텐츠, 시스템 등의 개발을 통해 상품의 질적 제고를 꾀할 수 있다(안희자·심원섭, 2013). 특히 융합관광은 관광기업·조합 등의 단체나 개인이 자발적인 학습에 의해 계획을 세우고 자주적인 기술을 토대(宮本憲一, 1989)로 자원, 조직, 제도 등에 혁신을 해나감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통한 지역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 문화를 자원으로 하는 실행적 관점은 문화를 어떻게 보여 줄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둡니다. 하지만 저희 마을에서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어떻게 문화를 영위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생활에서 스스로 즐기는 문화에 대한 향수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매개로 방문객들의 문화적 호기심을 자극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이해가 확대되어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협조가 생겨났습니다(사례 A).

#### 4) 가치지향

##### 〈경제적 가치창출〉

융합관광은 산업차원에서 시장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목적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에 관련된다. 의료관광, MICE산업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형 관광상품 제공으로 관광객의 증가 및 관광소비의 확대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농촌관광의 경우 관광서비스 창출에 따른 관광객 등 유입 인구의 증가로 지역의 소득이 증가하고, 내수가 증가되는 등 융합관광은 지역의 경제적 가치창

출에 기여하게 된다.

환자분들이 만족스럽게 치료를 받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셔서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좋게 얘기하고, 주변의 지인에게 의료관광을 추천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대한 긍긍증이 생기면서 방문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의료관광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의료관광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자부심이 제일 큰 것입니다(사례 E).

##### 〈사회적 가치창출〉

산업 활동의 일반적 목표는 이익창출이다. 융합관광도 산업 활동의 결과로서 경제적 효과가 유발된다. 하지만 이외에도 고품질의 의료서비스 만족에 따른 지역이미지 제고,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의 복원 및 역량 강화, MICE의 성공적 개최에서 오는 인적네트워크의 확장 등 사적 편익을 넘어서 타인과 공동체의 구성원 그리고 공동체에 편익(김정욱, 2010)을 창출한다.

지난 12월에 마을축제를 열었습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즐겁게 즐기는 걸 보고 "정말 이 사업은 성공 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문화적 자긍심이 생겨났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댄스, 밴드와 같은 생활형 문화에 참여해서 문화적 역량이 향상되었으며, 마(馬)문화자원을 발굴함으로써 문화를 통한 공동체 의식이 복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례 A).

### 3. 논의

이상의 연구에서 도출된 융합관광의 속성은 시장지향, 협력지향, 혁신지향, 가치지향 등 네

가지로 범주화되었다. 이를 토대로 융합관광 개념이 가지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융합관광의 주체는 산업차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융합관광이 산업 활동의 본질인 시장 창출을 위한 경제활동에 관련되고 있으며, 대체재 범위에서의 산업 간의 융합(Weaver, 2007)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보완재로서의 관광산업의 특징과 비교될 수 있다.

융합 과정에서 관광산업은 타 산업과 서로 협력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마케팅, 공동상품개발, 공동투자 및 공동 R&D, 인력개발 등 산업 간에 구체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된다(안희자·심원섭, 2013). 하지만 기존의 관광산업 중심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과 달리 융합관광은 타 산업과의 수평적 네트워크에 의해 협력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융합관광의 혁신 지향적 특징은 융합의 본질적 의미와 관련된다. 융합은 서로 다른 분야의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시너지를 일으키는 과정이다(이상문·올슨, 2011). 융합관광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거나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방법이나 사고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산출물을 얻거나 특정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양우, 2013).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융합관광은 융합의 결과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가치 지향적 특징이 있다. 기존의 관광산업이 경제적 가치창출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면, 융합관광은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군의 창출, 신규 고용시장의 창출 등으로 산업으로서의 가치사슬을 창출한다. 또한 각 영역의 네트워크를 위한 개방성과 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 공공서비스의 경쟁력 제고, 지역의 자원과의 융합을 통해 나타나는 공동체 복원 및 문화적 역량 강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가 창출됨으로써 지역의 내발적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는 관광의 지속가능성과 관계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융합관광의 개념적 정의를 하였다. “융합관광이란 관광산업과 타 산업이 수평적 네트워크와

〈표 5〉 융합관광 개념의 구성요소

구분	핵심어휘	계열화		범주
주체	다른 영역, 관광산업, 산업 간, 자산업의 분명한 정, 전제, 범위의 경계	산업, 관광산업	산업차원	시장지향
	시스템 연결, 네트워크, 연계, 전달	네트워크	수평적	
과정	비중심성, 내부 민주주의, 흡수불가, 삼위일체	탈중심성	네트워크	협력지향
	상생의 가치, 믿음, 비전화, 명분화, 공감대	비전공유		
	갈등조정, 이해관계, 내적갈등 해소, 협력, 공조, 희생, 소통, 교집합, 동등	협력	공조	
성과	전문성 및 특수성 발휘, 선례 없음, 아이템 발굴, 벤치마킹 불가, 믹싱, 창조성, 다른 관점, 다양성, 차별화, 새로운 모티브	창조성	창조적 결합	혁신지향
	융해됨, 점점, 믹싱, 중간단계, 시너지	결합		
	자발적 참여, 내발적 발전, 주체의식	주체성	내발적 혁신	
성과	시행착오, 선구자, 혁신성	혁신		가치지향
	경쟁력 증가, 부가가치창출, 상업화, 발전, 경제적 효과, 집적화, 산업화, 지역소득 증가, 경제 활성화, 수익창출, 파급효과, 관광활성화	경제성	경제적 가치창출	
	공동체 복원, 문화보존, 문화적 자긍심, 긍정적 구전, 이미지 제고, 도시마케팅, 진화, 인적네트워크 확장, 지속가능한 관광	공공성	사회적 가치창출	

공조를 통해 콘텐츠를 창조적으로 결합하고 내발적 혁신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이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융합 패러다임에 관광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융합관광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직까지 융합관련 연구는 학술적 통일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실천적 논의에 집중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개념화를 통한 논리의 생성과 결과를 다뤄봄으로써 융합관광의 이론체계를 견고히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융합과 산업융합의 개념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념이 가지는 핵심 속성을 도출한 후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주요 속성으로 범주화시켰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융합관광의 주요 속성은 시장지향, 협력지향, 혁신지향, 가치지향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면, 융합관광의 주체는 산업차원으로 시장지향성을 추구하며, 융합의 과정에서는 산업 간의 협력적·수평적 네트워크를 실행하기 위한 협력지향성과 콘텐츠의 창조적 결합을 위한 혁신지향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의 결과로는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창출하는 가치지향성을 추구한다. 결국 융합관광의 출발은 시장 지향적 특성에 기반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타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해 나감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적 가치는 물론 지역의 공적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광산업과는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융합관광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의 관광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융합관광에 대한 정의(김사현, 2006; 안희자·심원섭, 2013)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

에서의 개념적 정의에서는 관계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갖는다. 또한 융합관광의 최종가치를 공적가치로서 지속가능성에 더함으로써 “함께 큰 즐거움을 잡다”의 통섭의 의미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결국 융합관광의 의미에는 융합(convergence)뿐만 아니라 통섭(consilience)의 의미가 포함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직 융합관광에 대한 이론연구의 전반적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하지만 관광산업에서 융합은 이제 실천을 구상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융합이 가지는 정체성, 가치, 기능, 역할 등으로 그 논의가 확대돼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 철학은 개념을 창조한다고 하였다(Deleuze & Guattari, 1990). 어떤 패러다임도 논리적 토대에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관광 환경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융합 패러다임을 구체화함으로써 융합관련 후속연구를 파생시킬 수 있는 논리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질적연구를 통해 패러다임의 사회적 맥락을 들여다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관광학의 방법론 확장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융합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과 모호성에 편승하여 이미 산업적 담론으로 확장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이런 현상은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결과의 의미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향후에는 본 연구의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권철순·변우희·홍창은·김기태(2014). 디지털정보시대의 지역문화관광정보서비스의 통합비교에 따른 언어가치평가와 대응. 『동북아관광연구』, 10(2). 1-23.
- 김경동·이은숙(1998). 『사회조사연구방법』. 서울:

- 박영사.
- 김구(2011). 『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론의 이해』. 서울: 비엔엠북스.
- 김광웅(2003). 『방법론강의: 기초·원리·응용』. 서울: 박영사.
- 김덕현(2011). 『융합 경영: 세상을 움직일 컨버전스 파워 10』. 서울: 글로세움.
- 김사현(2006). 관광산업의 새로운 트렌드: 복융합 관광과 신관광. 『한국관광정책』, 24, 14-19.
- 김세우(2007).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셀프리더십 비전』. 서울: 한솔아카데미.
- 김성중(2009). 『비전으로 인생을 연주하라』.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김성호(2012). 융복합예술의 현황과 전망. 『예술문화비평』, 7, 14-41.
- 김정욱(2010).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 형성과정에서 자발적 결사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성미산마을을 중심으로』. 미발행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김향원·남용현(2013). '융합'개념의 이해와 디자인 환경에서의 의미. 『한국디자인포럼』, 39, 241-250.
- 김희경·차영란·봉미선(2010). 융합형 서비스의 정부 지원 범위에 관한 연구: 융합형 서비스의 다차원적 개념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0(2), 301-342.
- 류광훈(2001). 『한국 관광산업의 구조변화와 성장요인: 85-90-95 점속불변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미발행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류귀진(2010). 『산업간 융합 서비스 모델 개발 프레임워크 연구』. 미발행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박양우(2013). 창조적 융합관광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한국관광정책』, 52, 22-32.
- 박현지·박봉규(2014). 관광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융합기반 이용유형에 따른 관광서비스 모델 개발. 『관광·레저연구』, 26(9), 179-198.
- 변우희·이정열·변성희(2013). 문화관광의 진단과 지역문화관광정보서비스 융합모형. 『관광학연구』, 37(9), 71-90.
- 서윤정(2013). 『6차산업: 융복합 혁명』. 서울: HNCOM.
- 신동희(2011). 『스마트 융합과 통섭 3.0』.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안희자·심원섭(2013). 창조경제시대 산업간 융합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방안.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유봉호(2008). 『시장지향성과 경영성과 간에 기업 가치향성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시장지향성의 선행변수인 정보를 중심으로』. 미발행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윤태림(2013).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강원도: 아르케.
- 윤철운(2000). 『중소기업-대기업간 네트워크 구조 및 협력관계 강화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미발행석사학위논문, 한국과학기술원.
- 이무용(2012). 창조관광의 이론 체계 개발에 관한 이론적 연구. 『동북아관광연구』, 8(4), 239-251.
- 이상문·데이비드 L. 올슨(2011). 『융합경제, 제4의 물결: 컨버저노믹스』. 경기도: 위즈덤하우스.
- 이익섭·신은경(2005). 장애정체성 개념화 연구: 포커스 그룹 면접과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0(4), 509-530.
- 이인식·오세정·엄경희(2010). 『기술의 대응합: 21세기 창조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서울: 고즈윈.
- 이정모(2014). 『인지과학: 학문 간 융합의 원리와 응용』.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임지룡(1990). 의미의 성분분석에 대한 종합적 검토. 『국어교육연구』, 22(1), 101-128.
- 조성남·이현주·주영주·김나영(2011). 『질적연구 방법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그린.
- 정보현(2013). 『비전수립 코칭 프로그램이 방과 후 아카데미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미발행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지식경제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2011). 산업융합 100대 사례집.
- 최재천·장대의(2005). 『통섭: 지식의 대통합』. 서

- 을: 사이언스북스.
- 宮本憲一.(1989). 環境經濟學. 岩波書店.
- Apostolakis, A. (2003). The convergence process in heritage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30(4), 795-812.
- Babbie, E., & Rubin, A. (1997).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Borés, C., Saurina, C., & Torres, R. (2003). Technological convergence: A strategic perspective. *Technovation*, 23(1), 1-13.
- Bröring, S., Martin, C., & Leker, J. (2006). The front end of innovation in an era of industry convergence: Evidence from nutraceuticals and functional foods. *R&D Management*, 36(5), 487-498.
- Cohen, E. (1992). Pilgrimage and tourism: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A. Morinis (Ed.), *Sacred journeys: The anthropology of pilgrimage* (pp. 47-61). New York: Greenwood Press.
- Deleuze, G., & Guattari, F. (2003). 『천 개의 고원. 1. 자본주의와 분열증』, (김재인 역). 서울: 새물결출판사.
- Derrida, J. (1996). *Remarks on deconstruction and pragmatism*. In S. Critchley & C. Mouffe (eds.), *Deconstruction and Pragmatism*. London: Routledge.
- Dowling, M., Lechner, C., & Thielmann, B. (1998). Convergence-Innovation and change of market structures between television and online services. *Electronic Markets*, 8(4), 31-35.
- Duysters, G., & Hagedoorn, J. (1998). Technological convergence in the IT industry: The role of strategic technology alliances and technological competencie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Economics of Business*, 5(3), 355-368.
- Gomes-Casseres, B. (1994). Group vs group: How alliance networks compete. *Harvard Business Review*, 72(4), 62-67.
- Gordon, R. (2003). Convergence defined. *Online Journalism Review*, 23. Retrieved from <http://www.ojr.org/ojr/business/1068686368.php>
- Greenstein, S., & Khanna, T. (1997). "What does industry convergence mean", In Yoffie & David (Eds.), *Competing in the age of digital convergence*.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Hariato, F., & Pennings, J. (1994). Technological convergence and scope of organizational innovation. *Research Policy*, 23(3), 293-304.
- Kaplan, A. (1964). *The conduct of inquiry: Methodology for behavioral science*. San Francisco : Chandler Publishing Company.
- Karvonen, M. (2011). *Convergence in industry evolution*. Unpublished Doctorate Dissertation. Lappeenranta University of Technology.
- Lei, D. (2000). Industry evolution and competence development: The imperatives of technological converg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Management*, 19(7), 699-738.
- Lind, J. (2005). Ubiquitous Convergence: Market redefinitions generated by technological change and the Industry Life Cycle. Paper presented at *the DRUID Academy Winter 2005 Conference*, January. 27-29.
- Morris, S. (2003). *Life's solution: Inevitable humans in a lonely univer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groponete, N. (1978). *The media room. Report for ONR and DARPA*. Cambridge: MIT Press.
- Pennings, J., & Puranam, P. (2001). Market convergence & firm strategy: New directions for theory and research, Paper presented at the ECIS Conference, *The Future of Innovation Studies*, Eindhoven: Netherlands, Sep. 20-23.
- Reisinger, Y., & Crotts, J. (2009). Applying Hofstede's national culture measures in tourism research: Illuminating issues of divergence and convergence. *Journal of Travel Research*, 49(2), 153-164.
- Rosenberg, N. (1963). Technological change in the machine tool industry,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23(4), 414-443.
- Schumpeter, J. (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 Stieglitz, N. (2003). Digital dynamics and types of industry convergence: The evolution of the handheld computers market in the 1990s and beyond, In Christensen, Frøslev Jens & Maskell, Peter (Eds.), *The industrial dynamics of the new digital economy*, London: Edward Elgar.
- Weaver, B. (2007). Industry convergence-driving forces, factors and consequences. Paper submitted to the 19th NFF conference in Bergen, Aug. 9-11.
- Whewell, W. (1840). *The Philosophy of the Inductive Sciences*. 2 vols. London: John W. Parker.
- Wilson, E. (1999).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 New York: Vintage Books.
- Wirtz, B. (2001). Reconfiguration of value chains in converging media and communications markets. *Long Range Planning*, 34(4), 489-506.
- Zhang, J., & Kumar, S. (1997). Detection of convergent and parallel evolution at the amino acid sequence level. *Molecular Biology and Evolution*, 14(5), 527-536.

2015년 4월 6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6년 2월 11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6년 2월 17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畢